

경건한 생활을 함

성경: 잠 29:18상, 23:23, 20:27, 4:23, 10:12하, 17:9

I.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던지나” — 잠 29:18상.

- A. 성경에서 ‘이상’은 비범한 광경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봄(seeing), 곧 영광스러운 내적인 봄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영적인 광경을 가리킨다 — 켈 1:1, 4-28, 단 7:1, 9-10, 13-14.
- B. 이상을 갖기 위해 우리는 계시와 빛과 시력이 필요하다 — 앱 1:17-18상.
- C. 하늘에 속한 이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제한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보존하고, 변혁하고, 진정한 하나 안에 지켜 주고, 우리에게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준다 — 잠 29:18상.
- D. 이러한 이상을 볼 때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는 내적 전환을 가지며,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태도가 바뀌게 된다.
- E. 하늘에 속한 이상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며, 우리를 붙잡아 주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며, 우리를 주님의 최선의 움직임 안으로 이끌어 주고, 우리의 생활을 의미와 목적이 가득하게 해 준다 — 히 1:8, 12:1-2, 앱 3:11, 딤후 1:9, 3:10, 계 1:9, 3:10.
- F.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적 이상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을 혁신할 것이다 — 행 26:13-19, 롬 1:9.
- G.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통제를 받게 된다 — 빌 3:13-14, 딤후 1:4.
- H. 성경의 통제하는 이상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그들의 전 존재를 신성한 삼일성으로 적시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시고 건축하시는 것이다 — 앱 4:4-6, 계 21:2, 9-10.

II.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 잠 23:23상.

- A. 진리는 우리가 사야 할 것, 곧 값이 있는 것이다 — 잠 23:23상.
 - 1.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 요구된다.
 - 2.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리 편에 서기 원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비교 계 3:18.
 - 3.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진리를 살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 살후 2:10-11, 잠 23:23.
- B. 신성한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하며, 진리의 절대성을 지켜야 한다 — 요 14:6, 18:37, 요삼 3-4, 8.
 - 1.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라는 것은 느낌을 제쳐 두고, 사적인 관계들을 돌아보지 않으며, 자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마 16:24-25, 뱀전 1:22.
 - 2. 진리가 유일한 표준이며,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 자신을 거절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구출될 때에만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 요 8:32, 요이 2, 요삼 3-4.
 - 3.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해야 하고, 진리의 길을 취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 뱀후 2:2.
- C. 신성한 경륜을 완결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 뱀후 1:12.

1. 현재의 진리는 믿는 이들에게 있는 진리이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이미 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진리이다 — 뱀후 1:12.
2. 현재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엡 1:10, 3:9), 신성한 삼일성(고후 13:14, 계 1:4-5),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골 2:9, 16-17, 3:11), 완결되신 생명 주시는 영(요 7:39, 고전 15:45하, 계 22:17),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요 3:15-16),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엡 1:22-23), 새 예루살렘(계 21:2, 10-11)에 관한 계시를 포함한다.
3. 현재의 진리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포함한다. 신성한 계시의 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시고 건축하신다는 계시이다. 이것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와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 요 1:12-14, 요일 3:1-2, 롬 8:3, 1:3-4, 12:4-5, 계 11:15.

III. “사람의 영은 여호와와 동이라 /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 잠 20:27.

- A. 사람의 영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이다 — 마 25:1.
 1. 사람의 거듭난 영 안에서 빛나는 빛은 하나님 자신이다 — 요일 1:5.
 2. 등이 빛을 담고 그것을 표현하듯,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담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3. 신성한 빛이 사람의 속부분들 안으로 비치기 위해서는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반드시 심지인 사람의 영을 적시시고(연합되시고) 사람의 영과 함께 ‘불타셔야’ 한다 — 롬 8:16, 12:11.
 4. 우리가 영의 빛 비춤에 반응한다면 영을 따라 행하게 될 것이다 — 롬 8:4.
- B. 하나님의 영 또한 일곱 배로 빛이 강화된 등이다 — 계 4:5.
 1.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는 등이며, 하나님의 영 또한 등이다.
 2.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둘 다 등이며, 이 두 영은 함께 속부분들에 빛을 비춘다 — 잠 20:27, 계 4:5.
 3. 영은 우리 혼의 각 부분에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
- C.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합당하게 기도할 때, 등이 빛을 비추게 된다 — 엡 6:18, 1:17-18, 5:8-9.
 1.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영은 비추는 등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여 우리 혼의 모든 부분을 살핀다 — 잠 20:27.
 2.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할수록 더욱더 빛 비춤을 받는다 — 고후 4:6.
 - a. 등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빛을 비출 것이다.
 - b. 주님은 우리의 속부분들을 철저히 살피실 것이다 — 시 139:23-24.
 3.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밝고 투명하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 엡 5:8-9.

IV. “늘 깨어 네 마음을 지켜라. /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 잠 4:23.

- A. 혼은 사람 자신이지만, 마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 눅 1:66, 2:19, 51, 행 11:23, 엡 3:17, 살전 3:13.
 1.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는 우리를 대표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 대표자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 눅 6:45, 요 16:22, 고후 3:16.
 2.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첫째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마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기관이자, 무언가를 받을지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 행 8:37, 롬 10:9-10.
 3. 비록 우리의 영이 순수할지라도 우리의 영으로부터 무엇이 표현될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 살후 2:17, 3:5.

- B. 마음은 우리의 전 존재의 입구와 출구이다 — 마 13:19, 15:18-19.
1. 우리 존재의 왕래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존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나온다 — 눅 6:45.
 2. 우리의 영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통로, 곧 입구와 출구이다.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왕래는 우리의 마음을 통과한다 — 마 12:34-35.
 3.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하고, 늘 깨어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경계해야 한다 — 잠 4:23.
- C. 잠언 4장 23절에서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경계하다’는 의미이다.
1.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데, 이것은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2. 잠언 4장 23절은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흘러나옴뿐 아니라 근원과 샘을 함축한다.
 - a.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은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 비교 요 4:14.
 - b. 마음은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샘과 생명의 흘러나옴과 관계있다 — 비교 사 12:3.
 - c. 우리의 어둠함 곧 우리의 참된 존재의 원천이자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 비교 요 7:37-38.
- D.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 주님 앞에서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처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경계한다. 우리의 마음을 처리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잘 경계하게 된다 — 시 26:2, 139:23-24, 잠 4:23, 롬 8:27, 계 2:23, 마 13:18-23, 5:8.
- E.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며, 늘 깨어 우리의 마음을 경계함으로써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한다 — 벧전 1:8, 2:2, 5, 3:4, 15, 잠 21:2, 4:18-23, 신 10:12, 막 12:30.

V. “사랑은 모든 잘못을 덮어 준다.” — 잠 10:12하.

- A. “잘못을 덮어 주는 이는 사랑을 구하나 / 문제를 거듭 말하는 이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 잠 17:9.
- B. 덮어 주는 것은 사랑이고,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 약 5:20.
- C. 덮어 주는 것은 축복을 이끌어 오지만, 드러내는 것은 저주를 이끌어 온다 — 창 9:22-27.
1. 다른 이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2. 다른 이들의 죄들과 결함과 부족함을 덮어 주는 사람들은 축복을 누리고 얻고 받는다.
- D.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준다.”(고전 13:7상) 즉 좋은 것들뿐 아니라 나쁜 것들도 덮어 준다.
1. “장로들은 목양할 때 다른 사람의 죄들을 덮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165쪽.
 - a. “교회 지체들의 결점들과 단점들과 죄들을 덮지 않는 이들은 누구나 장로 직분에 대해 자격이 없다.” — 165쪽.
 - b. “우리의 장로 직분 아래 있는, 곧 우리의 목양 아래 있는 지체들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자격을 무효화한다.” — 165쪽.
 2.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되, 모든 잘못을 덮어 주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목양해야 한다 — 벧전 5:2, 잠 10:12하.
- E.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입니다.” — 벧전 4:8.